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이 종 선[†]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부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을 행하는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설명해 주는 변인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반인 부부 211쌍의 남편과 부인 각각에게 폭력, 의사소통, 충동성,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과 부인 모두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0세 미만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자신의 요구행동이고 부인의 경우는 자신의 요구행동과 충동성이었다. 40세 이상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요구행동, 부인의 철수행동, 그리고 자신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40 미만 부인의 경우는 자신의 요구행동과 충동성이 40세 이상 부인은 요구행동이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신체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언어적 폭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0세 미만 남편의 경우는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어떤 변인도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40세 이상 남편의 경우는 언어적 폭력 다음으로 공격적 대인관계 자신의 요구행동 부인의 요구행동이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 부인의 경우는 언어적 폭력 다음으로 피착취적 대인관계와 자신의 요구행동이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 부인의 경우는 언어적 폭력만이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충동성,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방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종 선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E-mail : leciel2@hotmail.com

부부는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이견과 갈등을 폭력을 통해 해결할 경우 상대방에게 더 많은 심리적, 신체적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결과인 부부간 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신체적 폭력의 원인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지만,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언어적 폭력의 결과가 신체적 폭력의 결과만큼 눈에 보일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언어적 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Hoffman(1984)은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Pan과 Neidig 및 O'Leary (1994)는 학대적이고 위협적인 언어와 신체적 폭력간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Murphy와 O'Leary (1989)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언어적 폭력이 이후의 신체적 폭력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 이전에 나타나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별 균형(gender symmetric)에 관한 논쟁이다(Johnson, 1995). 즉 남,녀 중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더 폭력을 많이 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Browne, 1993; Kurz, 1993)에서는 남편이 부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O'Leary, Barling, Rosenbaum, Malone, & Tyree, 1989; Magdol, Moffitt, Caspi, Newman, & Fagan, 1997)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raus와 Sweet(1992)는 언어적 폭력 사용 정도에 있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일반인과 학대피해자 집단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폭력행동의 원인을 개인특성과 부부의 관계특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O'Leary, Malone, & Tyree, 1994). 개인특성으로는 낮은 자존감, 우울, 반사회적 성격특성, 공격성, 충동성 등이, 관계특성으로는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방식이 많이 다루어져 왔다. O'Leary 등(1994)은 결혼초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원인을 개인특성과 관계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 관계특성은 남편보다 부인과 더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동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인들은 언어적 폭력의 매개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Mason과 Blankenship(1987)의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는 권력에 대한 욕구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충동성이 강하고 배우자와 친밀해지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을 경우에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 남편의 폭력행동은 개인특성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인의 경우는 개인특성 뿐 아니라 관계적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 폭력행동이 남편의 폭력 행동에 대한 방어수단인 것인지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의 관점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Browne, 1993; Pleck, Pleck, Grossman, & Bart, 1978).

폭력행동은 부부간 의사소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간의 요구, 철수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해온 부부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생각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의사소통이다. 그런데 갈등상황에서 대화방식이 어느 한편의 요구적인 행동이 되거나 철수적인 행동이 될 때, 또 배우자에게 불평이나 원망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대화방식으로 굳어져 갈 때는 배우자간 서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할 경향성이 높다. Holtzworth-Munroe와 Smutzler 및 Stuar(1998)는 신체적 폭력 행동을 보이는 남편을 대상으로 요구, 철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신체적 폭력과 결혼불만족을 함께 경험하는 남편은 신체적 폭력과 결혼불만족을 둘 다 경험하지 않는 남편에 비해 더 요구적이면서도 동시에 철수적인 행동을 보였고, 폭력이나 결혼불만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두 배우자 모두 더 많은 요구와 철수적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agrestano와 Heavey 및 Christensen(1999)은 요구, 철수적 의사소통 방식이 신체적 폭력과 연관된다는 이전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남편이 요구하고 부인이 철수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

과 더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남편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부인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반인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볼 때 부인의 어떤 특성이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반인 부부를 대상으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반인 부부를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에 남편과 부인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충동성,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 중 어떤 변인이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폭력을 설명해 주는 변인이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4월 11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일반인 부부 211쌍(남편: 211명, 부인: 2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혼기간이 1년 이상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300쌍 중 총 240쌍(80%)였다. 이 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동일하게 반응하여 응답이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성별이나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응답을 빼뜨린 자료 등은 제외하고 최종 211쌍(남편: 211명, 부인: 211명)을 본 연구의 최종자료에 포함시켰다. 피검자의 연령은 남편, 부인 모두 30대, 40대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는 대졸이, 부인의 경우는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도 구

갈등대처유형척도

Straus(1996)가 CTS I (Conflict Tactics Scale I)을 보완하여 개발하고 손정영(1997)이 번안한 CTS II(Conflict Tactics Scale II)를 사용하였다. CTS II척도의 문항들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한 갈등해결 방식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한 갈등해결 방식들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폭력 척도와 신체적 폭력 척도만을 포함시켰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0), 1년전에 발생(1)¹⁾, 1년에 1번(2), 1년에 2번(3), 1년에 3-5번(4), 1년에 6-10번(5), 1년에 11-20번(6), 1년에 20번 이상(7)의 8점 척도이다. 여기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갈등해결방식에서 폭력의 수준이 높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언어적 폭력에서 남편, 부인 각각 .75, .76, 신체적 폭력에서는 남편 부인 각각 .89, .75였다.

전반적 결혼 불만족 척도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Syn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를 선택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예’,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기술한 것이다. 권정혜 등(199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였다.

의사소통 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Christensen 등이 개발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를 임승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문제가 처음 생길 때, 문제를 의논할 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의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지각한 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에, ‘전혀 그렇다’면 9점에 응답하도록 하는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척도는 .85, 상호회피 척도는 .62, 남편-요구/부인-철수 척도는 .63, 부인-요구/남편-철수 척도는 .69였다.

충동성 척도

Eysenck(1985)가 충동적인 행동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충동성 척도를 이현수(198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충동적인 활동과 무계획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35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의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1)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1년 전에 일어난 경우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다”와 동일하게 보았다.

대인관계 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영환과 홍상황(1999)의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8개 하위 척도 중 부부간의 갈등해결 방식에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향성과 관련된다고 생각한 공격적, 비주장적, 피착취적 대인관계 문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격적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너무 비판하고 공격하며 지나치게 자신에 맞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문제이고 비주장적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이며 피착취적 대인관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쉽게 설득 이용 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공격적 대인관계가 .83, 비주장적 대인관계가 .90, 피착취적 대인관계가 .78이었다.

조사절차

본 연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4월 11일 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부부와 서울 D대학 사회교육원 원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심리학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설문에 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주고 다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받아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검자들에게 본 연구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다시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었고, 남편용과 부인용 설문지는 각기 따로 작은 봉투에 넣고 다시 각 부부당 큰 봉투에 함께 넣어서 전달이 되었고, 남편과 부인이 설문지에 응답한 다음 서로가 응답한 설문지를 보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동봉한 다음

다시 큰 봉투에 넣어서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 시내 부부는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각자 선정된 부부에게 전달하고 회수하였고, D대학 사회교육원 원생들은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별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주요 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위 통계 검증은 SPSS 10.0으로 실시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경우 연령, 학력, 수입, 직업, 결혼형태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결혼기간($F=3.375, p<.01$)과 자녀수($F=3.661, p<.01$)에 따라 언어적 폭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기간($F=3.471, p<.01$)과 자녀수($F=4.163, p<.01$)는 신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편 빈도(%)	부인 빈도(%)
연령	20대	11(5.2)	27(12.8)
	30대	84(39.8)	83(39.3)
	40대	56(26.5)	66(31.3)
	50대	50(23.7)	30(14.2)
	60대	6(2.8)	2(0.9)
	무응답	4(1.9)	3(1.4)
학력	무학	1(0.5)	1(0.5)
	초졸	5(2.4)	9(4.3)
	중졸	8(3.8)	14(6.6)
	고졸	72(34.1)	101(47.9)
	대졸	98(46.4)	80(37.9)
	대학원졸	25(11.8)	5(2.4)
수입	무응답	2(0.9)	1(0.5)
	없다	2(0.9)	
	100만원 이하	14(6.6)	
	100~200만원	81(38.4)	
	200~300만원	76(36.2)	
	300만원이상	36(17.1)	
직업	무응답	2(0.9)	
	전문직	34(16.1)	16(7.6)
	관리직	30(14.2)	12(5.7)
	전문기술직	28(13.3)	17(8.1)
	사무직	58(27.5)	27(12.8)
	판매서비스직	45(21.3)	34(16.1)
결혼기간	주부	81(38.4)	
	농업	2(0.9)	
	기타	8(3.8)	
	무응답	6(2.8)	
	5년 이내	56(26.5)	61(28.9)
	6~10년	42(19.9)	36(17.1)
결혼형태	11~15년	22(10.4)	22(10.4)
	16~20년	30(14.2)	30(14.2)
	21~25년	33(15.6)	34(16.1)
	26년 이상	28(13.3)	28(13.3)
	중매혼	47(22.3)	43(20.4)
	연애혼	118(55.9)	113(54.1)
자녀수	중매+연애혼	46(21.8)	53(25.4)
	무응답	2(0.9)	
	없다	24(11.4)	
	1명	56(26.5)	
	2명	102(48.3)	
	3명이상	29(13.7)	

체적 폭력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경우에는 연령에서만 신체적 폭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서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40세 미만, 40세 이상)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부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관련성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집단(남편=211명, 부인=211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남편의 언어적 폭력은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r=.59, p<.01$)을 보였고, 부인의 언어적 폭력 또한 부인의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r=.57, p<.01$)을 보였다.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간 폭력이 서로 어떤 관

표 2. 남편과 부인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사이의 상관

	1	2	3	4
1. 남편의 부인에 대한 언어폭력		1.00		
2. 남편의 부인에 대한 신체폭력	.588 **	1.00		
3. 부인의 남편에 대한 언어폭력	.446 **	.272 **	1.00	
4. 부인의 남편에 대한 신체폭력	.243 **	.341 **	.573 **	1.00

** $p < .01$.

현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부인의 언어적 폭력은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r=.45$, $p<.01$)을 보였고,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도 유의한 상관($r=.27$, $p<.01$)을 보였다. 남편의 언어적 폭력과 부인의 언어적 폭력은 유의한 상관($r=.45$, $p<.01$)을 보였고, 부인의 신체적 폭력과도 유의한 상관($r=.24$, $p<.01$)을 보였다. 또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부인의 신체적 폭력은 유의한 상관($r=.57$, $p<.01$)을 보였다. 위의 결과는 부부간의 언어적 폭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로간 신체적 폭력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 사람의 폭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편도 같은 수준의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배우자의 폭력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부부간 차이

주요 변인의 평균과 부부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서 남편과 부인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과 충동성,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방식과의 관련성

언어적 폭력이 다른 주요변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편의 경우 언어적 폭력은 충동성($r=.28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대인관계 특성에서는 공격적 대인관계($r=.209$, $p<.01$), 피착취적 대인관계($r=.141$,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언어적 폭력은 결혼불만족도($r=.352$,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결혼생활에 불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언어적 폭력은 모든 의사소통 방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r=-.292$, $p<.01$)과 부적상관을, 상호회피($r=.322$, $p<.01$),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399$, $p<.01$),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292$,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언어적 폭력은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439$, $p<.01$),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461$, $p<.01$)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언어적 폭력은 충동성($r=.342$, $p<.01$), 공격적 대인관계($r=.194$,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결혼불만족도($r=.348$, $p<.01$)와

표 3. 연구대상자 주요변인들의 평균

	남편	부인	t
충동성	12.14(8.14)	12.27(7.16)	-.324
공격적 대인관계	7.34(5.96)	6.65(5.54)	1.576
비주장적 대인관계	11.36(7.82)	12.88(8.66)	2.158*
피착취적 대인관계	11.56(5.64)	11.43(6.11)	.174
결혼불만족도	5.14(5.01)	7.42(5.74)	-2.284**
상호건설 의사소통	32.11(9.08)	30.49(9.87)	2.622**
상호회피적 의사소통	5.48(3.73)	6.31(4.15)	-2.821**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8.95(4.84)	9.69(4.97)	-.744***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	10.24(5.51)	9.87(5.16)	-.367
언어적 폭력	6.30(6.67)	6.48(7.26)	-.356
신체적 폭력	2.09(5.46)	2.02(4.34)	.169

주1. ()표준편차.

주2. 남편: 211명. 부인: 211명.

* $p<.05$ ** $p<.01$. *** $p<.001$.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인의 언어적 폭력이 의사소통 방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r=-.238, p<.01$), 상호회피($r=.293, p<.01$),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234, p<.01$),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337,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언어적 폭력도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271, p<.01$),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33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다음 남편과 부인 각각의 신체적 폭력과 다른 변인들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편집단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충동성($r=.250, p<.01$), 대인관계 특성에서는 공격적 대인관계($r=.338, p<.01$), 피착취적 대인관계($r=.142, p<.05$), 그리고 결혼불만족도($r=.172, p<.05$)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r=-.195, p<.01$)과는 부적 상관을,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168, p<.05$),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149, p<.05$)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신체적 폭력은 자신의 의사소통보다 부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r=.166, p<.05$)과는 부적상관이, 상호회피($r=.232, p<.01$),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r=.267, p<.05$),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r=.262, p<.05$)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충동성($r=.223, p<.01$), 공격적 대인관계($r=.175, p<.05$), 결혼불만족도($r=.185, p<.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r=.223, p<.01$)과 부적 상관이,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신체적 폭력은 남편의 충동성($r=.150, p<.05$), 공격적 대인관계($r=.160, p<.05$) 그리고 의사소통 하위척도 중 상호회피($r=.185, p<.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

언어적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방식, 대인관계 특성, 충동성 중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배우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적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충동성,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실시했다. 언어적 폭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남편의 결혼기간과 부인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를 참고해서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을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 집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

표 5. 남편(40세 미만)의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59$)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남편요구적 의사소통행동	.402	3.257**	.162	.162	10.611***	1,55

** $p<.01$. *** $p<.001$.

표 6. 남편(40세 이상)의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88)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423	4.276 **	.179	.179	18.285 ***	1,84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323	3.066 **				
부인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	.249	2.363 **	.231	.052	12.433 ***	1,83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264	2.490 **				
부인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	.251	2.447 **	.275	.044	10.359 ***	1,82
남편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281	-2.239 **				

** p<.01. *** p<.001.

인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남편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0세 미만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F=10.611$, $p<.001$)으로 설명변량은 16.2%였다.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은 남편의 언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세 미만 남편들은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인에게 불평하는 투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을 하게 될수록 언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40세 이상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F=18.285$, $p<.001$)이었고 설명변량은 17.9%였다. 그 다음으로 부인의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 남편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순이었고 이들

세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27.5%였다. 이 중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과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은 언어적 폭력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상호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 등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고 옹호하며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피하려는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을 보일수록 남편이 부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남편은 문제의 대안들을 놓고 타협점을 찾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부인을 이해시켜려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

표 7. 부인(40세 미만)의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70)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300	2.557 **	.090	.090	6.538 **	1,66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300	2.622 **				
부인 충동성	.238	2.081 *	.147	.057	5.599 **	1,65

* p<.05. ** p<.01.

표 8. 부인(40세 이상)의 언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72)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435	4.014 ***	.178	.189	16.114 ***	1,69

*** $p < .001$.

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0세 미만 부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F=6.538, p < .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량은 9.0%였다. 다음으로는 부인의 충동적 성격특성이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14.7%였다.

두 변인 모두 부인의 언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인이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을 하게 될수록, 그리고 문제 해결 대안들에 대해 사려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는 충동적인 성격 특성을 지닐수록 남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40세 이상 부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F=16.114,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량은 17.8%였다. 그리고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은 언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1년에 한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언어적 폭력,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방식, 대인관계 특성, 충동성을

표 9. 남편(40세 이상)의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43)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언어적 폭력	.591	4.015 ***	.350	.350	16.120 ***	1,30
언어적 폭력	.553	4.113 ***				
공격적 대인관계	.367	2.729 ***	.482	.133	13.517 ***	1,29
언어적 폭력	.639	5.135 ***				
공격적 대인관계	.424	3.576 ***	.620	.137	15.218 ***	1,28
남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386	-3.181 **				
언어적 폭력	.581	4.966 ***				
공격적 대인관계	.471	4.126 ***				
남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641	-3.824 ***	.673	.053	13.864 ***	1,27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354	2.084 *				

** $p < .01$. *** $p < .001$.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Stet, 1990; O'Leary et al., 1989)에서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예측해 준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현 연구에서도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간 유의한 상관이 나온 결과를 참고해서 독립변인으로 신체적 폭력에 언어적 폭력을 투입하였다. 먼저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40세 미만(n=20)는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40세 이상의 남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언어적 폭력($F=16.120$, $p<.001$)으로 설명 변량은 35.0%였다. 다음으로는 공격적 대인관계,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나왔으며, 이들 네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67.3%였다. 이들 변인 중 언어적 폭력과 공격적 대인관계,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은 신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은 신체적 폭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부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가질수록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은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반면, 부인은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을 하게 될수록 남편이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부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연령(40세 미만, 40세 이상)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40세 미만인 부인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0세 미만 부인의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언어적 폭력($F=18.869$, $p<.001$)으로 설명변량은 34.4%였다.

다음으로는 피착취적 대인관계와 자신의 요구 의사소통 행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50.6%였다. 이 변인들 중 언어적 폭력과 피착취적 대인관계는 부인의 신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부인의 요구적 의사

표 10. 부인(40세 미만)의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39)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언어적 폭력	.586	4.344 ***	.344	.344	18.869 ***	1,36
언어적 폭력	.617	4.803 ***				
피착취적 대인관계	.293	2.285 ***	.429	.085	13.150 ***	1,35
언어적 폭력	.704	5.542 ***				
피착취적 대인관계	.300	2.478 ***	.506	.079	11.599 ***	1,34
부인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290	-2.298 **				

** $p<.01$. *** $p<.001$.

표 11. 부인(40세 이상)의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25)

단계, 변인	Beta	t	R ²	ΔR ²	F	df
언어적 폭력	.468	2.539 **	.219	.219	6.447 ***	1,23

*** $p < .001$.

소통 행동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부인이 남편에게 언어적 폭력을 하게 될 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친밀한 관계인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부부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남편이 잘못한 점을 불평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청을 잘 하지 못할수록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40세 이상의 부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 인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0세 이상 부인의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은 부인의 언어적 폭력 ($F=6.447, p<.01$)으로 설명 변량은 21.9%였다. 그리고 부인의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많이 할수록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 부부를 대상으로 일상적 부부싸움에서 시작되어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부부간의 역기능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 탐색을 통해 좀 더 많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일반인 부부에게서는 얼마나 행해지고 있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 남편과 부인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부인의 연령대에 차이를 두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결과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간에도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남편의 언어적 폭력은 자신의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부인의 언어적 폭력 및 부인의 신체적 폭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인의 언어적 폭력도 자신의 신체적 폭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부인의 신체적 폭력 사이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traus(1974), Kumagai와 Straus(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호혜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reciprocity)로 설명하였다. 즉 한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상대편 배우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배우자의 폭력과 같은 부정적 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럴 경우 어느 한편의 폭력행동은 추후 상대편 배우자의 폭력행동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 선행되어 진다는 Murphy 등(1989)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결국 언어적 폭력을 많이 하게 될수록 신체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과 함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원인 탐색과 치료적 개입 방법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데 남편과 부인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남편과 부인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Straus 등(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했을때는 남편과 부인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O'Leary et al., 1989; Straus & Gells, 1986; Magdol et al., 1997)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가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보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결과를 통해 실제 일반인구 집단내에서 많은 부부가 상호간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료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추후연구들에서는 실제 부부의 관찰행동을 통해 폭력행동이 어느 한편의 폭력행동에 대한 방어수단인 것인지, 아니면 상호폭력적인 성향의 행동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이 남편과 부인에 따라 또한 연령대(40미만, 40대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40세 미만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세 이상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설명해 주는 변인들은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부인의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 그리고 자신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과 부인의 철수적 의사소통 행동이 언어적 폭력을 설명한다는 기준의 연구결과(Sagrestano et al., 1999; Badcock, Waltz, Jacobson, & Gottman, 1993)와 일치한다.

40세 미만의 부인은 남편과 달리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외에 충동적 성격특성이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사용하는 40세 이상의 부인은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만이 언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편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부인 역시 남편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단 연령이 적은 부인의 경우에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깊이 생각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충동적 성격특성이 언어적 폭력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언어적 폭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잔소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굳어져 갈 때 결국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언어적 폭력은 결국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까지 해를 가하는 심각한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잘 전달하고 이해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들이 남편과 부인에 따라 또 연령(40세 미만, 40세 이상)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40세 미만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 알콜리즘(Hamberger & Hasting, 1991), 자존감(Surgarman & Hataling, 1989), 우울(Murphy, Meyer, & O'Leary, 1993) 등이 40세 미만 남편의 폭력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0세 이상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자신의 언어적 폭력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격적 대인관계,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순이었다.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상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O'Leary 등 (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 선행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언어적 폭력의 결과와 다른 점은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 보다 개인의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특성이 신체적 폭력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데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대인관계 특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40세 미만 부인의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들은 언어적 폭력, 피착취적 대인관계, 자신의 요구적 의사소통 행동 순이었다. 40세 이상 부인은 언어적 폭력만이 남편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동을 잘 설명해주었다. 부인의 경우도 남편

의 결과와 동일하게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을 상당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 관계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의사소통 뿐 아니라 관계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가 신체적 폭력을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편은 지나치게 타인에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다른 사람을 조정, 통제하고자 하는 문제가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는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대인관계 문제가 부인의 신체적 폭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언어적 폭력의 사용이 신체적 폭력의 사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또한 남편의 경우는 공격적 대인관계 문제, 부인의 경우는 피착취적 대인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생활에서 불만이 누적되어 가게 되면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요구적 의사소통 방식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의 요구적 의사소통이 언어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이 자체만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위협적인 말이나 욕설 등의 좀 더 심각한 정도의 언어적 폭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이거나 피착취적인 대인관계 문제가 더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대화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격적이거나 피착취적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서 적절한 감정표현이나 주장훈련에 대한 개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폭력 사용을 지난 1년간 일어난 일들을 기억해 내는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한 폭력행동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 자료 외에 심층적 인터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제 부부간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반인 부부 사이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선정이 필요하다. 현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표집한 결과 연령이나 학력 변인에서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일반인 부부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인 부부를 대표할 수 있는 피험자 선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부중 한쪽만을 특히 남편 가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쌍으로 표집하여 부인 가해자의 특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신체적 폭력 위주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환, 홍상황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 - 대인관계 문제 검사와 원형척도 -. 성곡논집, 30, 537-594.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2, 51-87.
- 이현수 (1985). 성격 차원 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임승락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adcock, J. C., Waltz, J.,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3). Power and Violence: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Power Discrepancies,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0-50.
- Browne, A. (1993). Violence against women by male partners: Prevalence, outcomes, and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8, 1077-1087.
- Eysenck, H. J., Eysenck, S. B. G.,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A natu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Hamberger, L.K., & Hastings, J. E. (1991).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batter and nonviolent men: som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131-147.
- Hoffman, M. A. (1984). Psychological abuse of women by spouse and live-in lovers. *Women and Therapy*, 3, 37-47.
- Holtzworth-Munroe, A., Smutzler, N., & Stuart, G. L. (1998). Demand and withdraw communication among couples experiencing husband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731-743.
- Johnson, M. P. (1995). Patriachal terrorism and

-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 Kumagai, F. & Straus, M. A. (1983). Conflict Resolution Tactics in Japan, India and the U. S. 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377-387.
- Kurz, D. (1993). Physical assaults by husbands: A major social problem.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88-103). Newbury Park, CA: sage
- Magdol, L., Moffitt, T. E., Caspi, A., Newman, D. L., & Fagan, J. (1997). Gender difference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Bridging the gap between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approach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68-78.
- Mason, A., & Blankenship, V. (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203-210.
- Murphy, C. M., & O'Leary, K. D. (1989).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79-582.
- Murphy, C. M., Meyer, S. L., & O'Leary, K. D. (1993).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MCMI-II psychopathology among partner assaultive men. *Violence Victims*, 8, 165-176.
- O' Leary, K. D., Barling, J., Rosenbaum, A., Malone, J., & Tyree, A. (1989). Prevalence and stabilit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spous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2), 263-268.
- O' Leary, K. D., Malone, J., &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Pan, H. S., Neidig, P. H., & O' Leary, K. D. (1994).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to-wife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975-981.
- Pleck, E., Pleck, J. H., Grossman, M., & Bart, P. B. (1978). The battered data syndrome: A comment on steinmetz' article. *Victimology*, 2, 680-683.
- Sagrestano, M. L., Heavey, L. C., & Christensen, A. (1999). Perceived power and physical violence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5, 65-79.
- Straus, M. A. (1974). Leveling, civility,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13-29.
- Straus, M. A., & Gells, R. J. (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65-479.
- Straus, M. A., & Sweet, S.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46-457.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1034-1048.
- Syn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원고접수일 : 2001.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2. 10

제재결정일 : 2002. 1. 15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in community Couples

Jong-Sun Lee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and identify gender differences in severity and associated variables of marital violence. Subjects consisted of 211 couples(husbands: 211, wives: 211) who were recruited in the commun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demonstrated between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the rate of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against spouse. To determin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variables to explaining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In verbal violent group, it was demonstrated that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explained 16.2% of variance of husband's violent behaviors(under 40). Wife's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wife's withdrawing communication behaviors, and 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haviors explained 27.5% of variance of husband's violent behaviors(above 40).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and impulsivity explained 14.7% of variance of wife's violent behaviors(under 40).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explained 17.8% of variance of wife's violent behaviors(above 40). In physical violent group, verbal violence, aggressive interpersonal problems,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and wife's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explained 67.3% of variance of husband's violent behaviors(above 40). Verbal violence, exploitative interpersonal problems, demanding communication behaviors explained 50.6% of variance of wife's violent behaviors(under 40). Verbal violence explained 21.9% of variance of wife's violent behaviors(above 40).

Keyword :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impulsivity, interpersonal problems, communication pattern